

'출판의窓'에 비친 2005

그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뉘 말마따나 '오래된 미래'까진 아니더라도 가까운 내일의 뉘앙스를 그 속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바엔 그저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것만 못하다. 그런 비장함으로 <출판저널>은 '출판의窓'에 비친 2005를 책의 표제어로 내걸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마음먹은 대로 매사가 이뤄지란 법은 없다. 금년 출판과 책에 엮인 것들 역시 그러했다. 개중엔 흔쾌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도 있었다. 출판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시선을 모은, 새로운 정신과 물질의 것도 속출했다. 허나 될 듯하다 안 된 일, 말과 말이 되씹히기만 한 것들도 많다.

병술년, 새해라고 해서 당장 시대의 메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조금은 더 영양가 있고, 공력이 깃들며, 실속 있는 일 년 후를 기대해봄직하다. 책을 통해 들여다본 율유년의 속내, 이런 저런 사람을 곱으며 기억해낸 한 해의 표정,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서 드러난 출판동정을 돌이키는 그 때 문이다.

이 모든 작업이 지난일에 대한 '수행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때 그 일과 그 사람의 몫이란 나름의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축적된 노하우로 이 모든 것들을 갈무리해, 내년의 과실을 풍성하게 하는 데 써먹으면 될 일이다. <출판저널> 표지이야기, '출판의窓'에 비친 2005가 그 단초가 됐으면 하나, 그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publication
2005

의미 있는 앞날을 위해 돌아본 '올해의 출판계'

35명의 앙케트 패널에게 묻다

'올해의 책', '올해의 인물', '올해의 과제' 조사결과, '출판계 민심 투영된 진솔한 답'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 <출판저널>이 앙케트를 통해 출판계의 '올해'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골라봤다. 2005 '올해의 책'엔 신영복 교수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올해의 인물'은 박맹호(사)대한출판문화협회장(민음사 회장), '올해의 과제'엔 '도서정가제'가 꼽혔다. 충분히 예상됐던 것들이다.

'올해'의 어쩌구 하는 테마는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뒤풀이다. 진부하기 짝이 없으나,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일 년을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모를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다른 앞날을 잘 꾸러가기 위해서도 이 작업은 송년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출판저널>은 금년엔 방법을 좀 바꿔봤다. 출판과 문화계를 아우른 각계 인사들에게 고루 설문지를 돌렸다. 출판을 중심에 둔, 책과 사람과 일 가운데 '올해'를 갈음할 만한 것들을 각 10개씩 골라 줄 것을 부탁했다. 설문 대상이 된 이들은 모두 서른 다섯 분. 미디어 분야(6명)와 출판편집인(5명), 서점계 인사(4명), 평론가(4명), 독서마니아(5명), 출판NGO 관계자(4명), 저술가(4명), 출판영업인(3명) 등이었다.

이들은 일상에 바쁜 가운데도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보내왔다. 그 중에서도 매일경제신문 허연 기자와 서울신문 임창용 기자, 알라딘의 김명남 편집장 등 17명은 개인의 평소 지론을 곁들이며 전체 문항에 대해 소상하게 모범답안(?)을 보내는 바람에 <출판저널> 편집진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김위찬의 <블루 오션 전락>은 그렇다치더라도,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이 '올해의 책'으로 꼽히고, 리영희의 《대화》나 최재천·도정일의 《대담》이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든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심장하다 할 것이다. 설문 대상이 된 분들 대부분이 소위 문화 엘리트 계층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

회의 문화적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능할 만한 선택이다.

앙케트 패널들은 본래 올해의 출판을 상징할 만한 인물을 복수 추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출판인 '박맹호'다. 종다수로 순위를 매긴다 해도 그는 '넘버 원'이었다. 출협회장으로서 한국 출판계의 밑그림을 새로 구상하고 실천하는 그의 '퍼스널리티'를 매우 무겁게 평가한 것이다.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생각할 때 김우창 조직위원장과 황지우 총감독이 포함된 것은 극히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여느때보다 남북 문학교류에 앞장서고, 한때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고은 시인, 관변 단체였던 옛 문예진흥원 대신 새롭게 출범한 한국문화예술회원의 김병익 위원장이 '베스트 10'에 든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문화광위 소속으로 출판관련 입법과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이상호 의원이 끼어든 것도 '출판계 민심'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설문 참가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인지, 도서정가제를 금년 최고의 현안으로 들었다. 해법이 막연한 숙제지만,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절박감을 패널들은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병술년 새해엔 꼭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출판유통문제, 독서와 출판시장 활성화, 도서관 등 한국출판문화의 해묵은 과제들도 '약방의 감초'격으로 거론됐다. 출판경영자들의 친민자본주의나 무분별한 해외서적 유입을 따끔하게 꼬집는 목소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출판저널> 기자들도 '올해의 키워드'를 선정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했다. 기자들은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블루 오션', '저작권 개정과 단속', '북한출판' 등을 키워드로 들었다. 이는 사실상 <출판저널>이 뽑은 올해의 10대뉴스에 갈음하는격이다. **▶▶**

<출판저널> 편집부